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9주일, 전교 주일
제37권 48호(가해) 2017년 10월 22일

[오늘의 묵상]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소명은 그분께서 남기신 가장 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당신께서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권한은 악마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 주며, 자기에게 앞드려 경배하던 주겠다고 했던 세속적 권한이 아니라,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느님께 직접 받으신 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십자가와 죽음을 실천함으로써, 파스카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얻게 될 하늘 나라의 권한입니다.

오늘날의 선교는 내가 가진 진리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개념을 넘어 이웃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시어 우리 안에 들어오셨던 하느님의 모습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희생과 수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신앙의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매일 미사 10월호 -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569-3940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 토요일) 성소후원회(첫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오전 10:00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성소후원회 (2,3,4,5주일)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양업/성모/자모/대진) • 꾸리아 • 빈첸시오회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00 오후 12:3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오전	오후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 ~ 7:00(오후)
수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목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금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토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주임신부 : 심원택 토마스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연)이용식 베드로
	(생)이윤희 바오로
학생 미사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 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지아, 김정혜수산나, 박주현 마리아, 임정자 분다,
	(생)박인규 요셉& 박인수 프란치스코 & 김은학 모니카, 박홍통 요셉, 손석 스테파노, 손왕업 윌리엄, 민경근베드로, Skyer Francisco Junior 조, 최동한 안드레아, 박진숙 엘리사벳, 송크리스티나 & 바오로 & 타미,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김마누엘라수녀 & 오창근 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1-5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 앞 - 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0,9-18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28,16-20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V.세계적 불평등

선진국들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를 크게 줄이고 가난한 나라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과 계획을 지원하여 이러한 부채를 갚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가장 가난한 지역과 나라들은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필요한 과정을 개발하고 그 비용을 충당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의 주교님들은 “힘있는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토론에서 가난한 이들과 무력한 이들과 취약한 이들의 요구”³¹⁾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인류 가족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국경도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무관심의 세계화를 위한 공간은 더욱 존재하지 않습니다.

VI.미약한 반응

53. 이러한 상황은 누이인 지구가 세상의 모든 버려진 이들과 더불어 외치며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볼 것을 호소하게 합니다. 우리의 공동의 집을 지난 200년 동안 아프게 하고 잘못 다룬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라신 그대로 존재하고 평화와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위한 당신의 계획에 맞갖은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에 맞서는 문화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후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모든 이를 고려하여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도력이 부족합니다. <계속>

31. 미국 주교회의, 성명 ‘세계 기후 변화: 대화와 분별과 공동선의 요청’ (Global Climate Change: A Plea for Dialogue, Prudence and the Common Good),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39	39	200
봉헌	257	257	268
성체	303	303	289
파견	215	215	215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래전 일입니다. 미사에 매일 오는 화목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부인을 성당에 차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만 성당에 들어가고 항상 형제님은 차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고 주변인들에게 종교에는 관심도 없고 살기 바쁘니 일에만 신경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부부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성당에 나타났습니다. 그 형제는 나를 보자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에 병원에서 우연히 암이 발견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병실 화장실 안에서 기도하는 부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느님 제 남편 좀 꼭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주님 대전에서 세례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부인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세가 호전된 남편은 서둘러 성당을 찾았습니다. “신부님! 제 아내가 하느님께 약속을 했는데 만약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내가 벌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그 후 신앙인이 되어 아주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이웃에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주님의 고유한 명령입니다. 보통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은 서로의 삶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처음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는 신자들의 삶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전교는 바로 나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삶은 신앙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이 자신들 안에서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인 나의 말과 행동은 온전히 나의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을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애들아,

요즘 엄마들은

자식 다 소용없단 말을 자주 하더라.

그 동안 죄가 많아 이 남잘 만났다면 사람들도 살아보니 남편밖에 없다는구나.

그럴 리가 있겠니. 너희가 서운하단 뜻이겠지.

너희가 애뜻하단 말을 에두른 것일 테지.

나도 요즘은 남편밖에 없는 거 같구나.

해서 남편 없이 늙어가는 내 엄마께

전화라도 더 자주 하려 한단다.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야참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야참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은혜 클라우드미	송인선 안젤라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김금자 데레사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	송인선 안젤라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2독서	송인선 안젤라	김금자 데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제물봉헌자			도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10월
목주기도 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 입니다.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목주기도 성월 기도문' 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VIRTUS 교육

VIRTUS는 종교 단체 또는 교회 조직안에서 안전 및 위험 관리 등의 교육 및 훈련 및 모범 사례를 통해 학대를 방지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지역 사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학생과 연관된 봉사자는 의무적 교육)

- VIRTUS I (첫교육) : 11월 4일(토) 오후 2시~5시(3시간)
- VIRTUS II (재교육) : 11월 11일(토) 오후 2시~3시30분 (매4년마다 1.5시간)
- 장소 : 강당
- 수강신청 : 이름과 교육 날짜를 문자로 예약,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행합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주일학교 밴드부 지도 교사

주일 학생 밴드부 담당 지도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103skecks@gmail.com ☎ (213)700-9399

◆ SAT II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

- 일시 : 11월 4일
-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허리케인 어마(Irma) 기도봉헌

- 허리케인 수해를 입은 모든 가정을 위해 백삼위 성당 울뜨레아에서 기도봉헌을 받습니다.
성당입구에서 오늘 주일(22일)까지 봉헌내용을 접수 받습니다. 많은 신자 분 들의 참여바랍니다.
- 대상 : 백삼위 성당 모든신자
 - 연락처 : 서용숙 에스텔 ☎ (310) 713-4744

◆ 글로리아 성가대 악기협조단원 및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는 기도이며 찬양이며 또한 주님을 향한 열렬한 봉헌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를 “교회와 모든 이웃”을 위해 발휘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 역시 주님이 보시기에 좋으실 것입니다.

- 악기 협조 단원 : 바이올린, 플룻, 트럼펫 연주자 각 1명 (대축일 및 특송을 준비합니다.)
- 성가 단원 : 성가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모든 분.
- 문 의 : 김 용 스테파노 ☎(310)926-2248
♡♡♡ 주님께서는 당신을 원합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 22일: * 짜장밥(\$3, 토서 1, 3반)
* 주일학교: 밋볼 (10 학년)
- 10월 29일: * 쇠고기 미역국 (\$3, 토남1,2반)
* 주일학교: 햄치즈 케사디아 (8 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고은별 권태만 김광자 김성택 김영경 김정엽 김진우 류현욱 문성길 민성원 박정자 반정이 신순철 안태갑 오수인 유철희 육근주 윤희동 이귀란 이인석 이정분 정광미 정동호 조준제 최원석 최희숙 홍인표 황인중	권태만 김정엽 박정자 신순철 안태갑 오수인 유철희 윤희동 이귀란 이인석 이정분 정동호 조준제 최원석 황인중
합계:\$2,940	합계 : \$1,700
주일미사헌금 :\$2,662 2차헌금 : \$ 463	주일학교입금 \$100 성물판매금 :\$138 감사헌금 : \$1,000(조희남) 매일미사책 판매이익금:\$40.60

◆ 젊은이들의 '기도 맛들이기' 모임 (찬양과 나눔)

- 일시: 10월 28일(토)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 성당
The Saints Koer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Torrance, CA 90505
- 문의: 이명서 수녀 ☎(310) 741-0556

◆ 남가주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1월 11일(토)
연도: 오후 1시15분, 미사: 오후 2시
- 장소: Holy Cross Cemetery Chapel
5835 West Slauson Ave. Culver City, CA 90230
- 주최: 남가주 천주교 사제협의회
- 주관: 천주교 성 아그네스성당 ☎(323)731-4433

◆ 남가주 '주사위' 찬양가족 모집

'주사위'란 주님의 사랑을 생활성가로 전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의 약자로 남가주 내 생활 음악단체입니다.

- 모집부문: 남녀보컬 및 키보드 각 1명씩
- 자격: 음악을 사랑하고 사명감으로 전할 수 있는 분
- 일정: 매년 정기공연 및 음악피정
- 지도: 성 아그네스성당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신청: 허 사도요한 jusawill122@gmail.com
☎(213)923-0898

◆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 (9개월 과정)

- 지도: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전 아네스 (Jenny Jun) ☎(213)507-1144

◆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최대제 신부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323)731-4433

소공동체 부 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 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메히틸다 713-4926	강순복 요셉피나 10/18(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리치오 781-0787	장수영 페트리치오 10/14(토)오후6시성당 강당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10/17(화)오후8시 성당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김충섭 마틴 10/01(일)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심재은 클레멘스 10/14(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0/14(토)10시30분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최옥희 데레사 755-8462	최옥희 데레사 10/20(금)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10/10(화)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10/08(일)12시30분 성당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 2	최미열 클라라 938-8089	권오상 바오로 10/09(월)오후7시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숙자 수산나 10/14(토) 오후6시 성당 2층R3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더아 735-3722	유현화 리더아 10/13(금) 오후7시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안민수 메드로 10/14(토)오후7시
	3	신혜정 토사 (213)369-0687	박준범 요한 10/13(금) 오후7시
	4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한애경 올리아나 10/11(수)오전 10시 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 회의	1시
-------	----

하느님의 계산법

큰아이가 아기 때 크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암병동이 따로 있지 않아 어린이병동 안에서 소아암 환아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지금 느끼는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이가 퇴원하면 골수기증을 신청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조금 시일이 걸리긴 했지만 골수은행에 혈액을 보관해주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골수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적합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가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생명을 나눌 기회가 생겼다는 기쁨이 작지 않았고, 솔직히 그 동안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을 골수기증으로 통 쳐보겠다는 계산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

다. 신촌에서 만난 아이 아빠는 아직 적합 검사도 하지 않았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 해다며 병원으로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끔씩 기증을 결정해놓고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는 공여자가 있는데 그 경우 이미 몸 안의 골수를 다 말려놓은 상태로 준비 중인 수여자에게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증 결정을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당부였습니다. 저는 가족 동의도 이미 받았고 큰애가 많이 아파 봤기 때문에 절대 변심할 일은 없을 거라며 안심을 드렸지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담당자를 만났을 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등에 업고 있던 둘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는 골수기증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그때까지 몰랐던 거죠. 순간 아이 아빠의 얼굴에 드리워지던 실망의 그늘을, 다시 시작된 기약 없는 기다림의 표정을 저는 오래도록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 지갑에는 한마음 한 몸 운동본부에서 발급받은 오래된 장기기증 등록증이 들어있습니다. 골수와 장기는 물론, 사후 시신기증까지 신청해놓았지만 만 40세가 넘어 이제는 골수기증도 할 수 없고, 뇌사시 장기기증은 가능하지만, 자연사일 경우는 그조차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시신기증이야 유족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 어쩌면 몸뚱이 하나도 세상을 위해 내어놓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어떻게든 통 쳐볼 계산이었는데 역시나 하느님의 계산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내어준다는 건 마음을 내어주는 것에 비하면 어떤지 쉬운 일 같습니다. 마음은, 사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자꾸만 상처가 되니까요. 한없이 사랑해도 억울하지 않은 마음은 도대체 언제쯤 갖게 될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랑을 기증하는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 김나영 요셉피나 / 작가

[길을 찾는 그대에게]

복사도 하고 착하기만 하던 아이가 중학생이 된 후에는 “왜 종교를 강요하느냐?”며 따집니다. 무어라 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 “자식은 종종 부모를 ‘우산’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화창한 날에는 심히 불편해하면서도 궂은 날이면 그 밑에 숨어드는 것을 빗댄 얘기이지요. 자매님께서는 사춘기 시절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면서 참견하지 말라는 엄포를 날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은 어릴 땐 언제나 부모님이 자기 곁에 있기를 원하지만 자라면 어른 말씀을 ‘잔소리’로 취급해 버립니다. 변하지 않는 청소년의 특징이지요. 그럼에도 부모는 주고 또 주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며 오직 자식 잘되기만 바라는 것도 변할 수 없는 부모님의 팔자이지요. 부모님의 이런 내리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교 교육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순명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이런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는 ‘결단코’ 없다는 걸 명심하도록 하세요. 무엇이든 자신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요라고 생각하며 부모님 속을 끓이는 게 자식입니다. 머잖아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기쁜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기쁜 믿음생활을 하도록 애써주시시오. 기도 드린 내용을 성실히 실천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백마디 말보다 훨씬 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 장재봉 신부/ 선교사목국장

VIP 메뉴판

얼마 전 식당에서 겪은 일이다. 작은 백반 집에서 급하게 식사를 하는데,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 한 분이 식당에 들어와 밥을 청했다. 주인아주머니는 환한 미소와 함께 계산대 안쪽에 특별하게 준비된 메뉴판을 할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었다. 메뉴판에는 ‘VIP 용’이라고 쓰여 있었다.

순간적으로 똑같은 손님인데 ‘누구는 VIP 손님이고 누구는 일반 손님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상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슬쩍 VIP 메뉴판을 보았다. 그런데 VIP 메뉴판의 식사 가격이 일반 가격의 1/3 밖에 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말했다. “손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그 어르신은 혼자 외롭게 사는 분인데 공짜로 드리려고 하면 식사를 안 해서 이런 방법으로 대접하고 있어요.”

◆ 주호식 / 가톨릭 굿뉴스

[출처 : 교황청전교기구 한국지부 편, 2016 사순 시기 묵상집 돌아섬]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사도 2,1-2)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날이 마침 오순절이었다고 전합니다. 오순절(五旬節)은 파스카 축제가 지나고 오십 일째 되는 날로서, 원래 밀 수확을 끝내고 하느님께 만물을 바치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탈출 23,16 참조)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하느님과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 곧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것을 경축하는 데까지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서는 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하느님께 추수감사제를 지내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까닭은 이제 결실의 때가 되었으니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추수하라’, 다시 말해 모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수난과 부활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면서 당신 제자들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마르 16,15)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은 제자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용감한 증인으로 변화시켰고 이를 통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사도행전 2장 참조)

우리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모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위로자이자 협조자요 보호자이십니다. 지상의 나그네요 순례자인 교회는 세상 종말까지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며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할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끄시는 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까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오순절에 내린 성령이십니다.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교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백성이 태어났습니다.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끄시는 분, ()의 재림 때까지 세상 안에서 ()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에 내린 ()이십니다.

10월15일 자 정답: 은총, 마리아, 주님, 여인, 예수님

◆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성경 속 동식물」 40 부정한 동물 쥐

성경에서 쥐는 일반적으로 부정한 동물로 등장한다. 레위기에는 쥐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레위 11,29 참조) 이사야서에서는 쥐를 먹는 자는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이사 66,17 참조) 한편 불레셋 사람들은 이 쥐를 우상으로 경배하면서 그들이 농토를 황폐하게 하거나 재난을 가져오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1사무 6,5 참조) 오늘날 쥐는 과학이나 의학 실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물이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의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매다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 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퀘녹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reen.
Pharmacy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형식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3215 Hawthon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